

요즘 가장 ‘핫’한 두 남자를 꼽으라고 하면 배우 최민식(61)과 정성일(43)이다. 두 사람은 각각 디즈니+ 드라마 ‘카지노’와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좀처럼 ‘나이스한 개새끼’의 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덕분에 여성 팬들은 물론 남성 팬들까지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8개월간 마음껏 연기 카지노와 연애한 기분” “학폭, 사회적 변화 뿌듯 키운 정 선택한 것 이해”

최민식

이동휘 등과 호흡…자극 제대로 ‘동갑 이해영과 로코 함께 찍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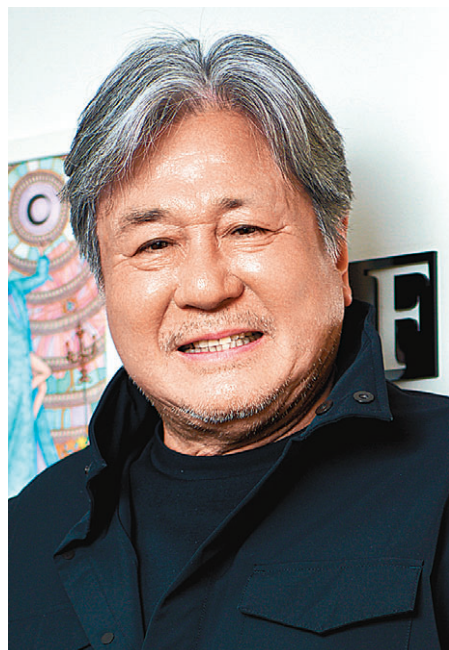
최민식은 1997년 MBC ‘사랑과 이별’ 이후 25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때로는 어색”하기도 했었다. 시청자의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해 매회 의 미심장하게 끝을 맺는 특유의 ‘엔딩’을 찍을 땐 “아유, 답살 똥는다”며 너스레를 떤 적도 있다며 웃었다.

“지난해 초겨울부터 가을까지, 8개월여 간을 ‘카지노’와 진하게 연애한 기분입니다. 아무리 경력이 오래됐어도 ‘이렇게 연기해볼걸’하는 아쉬움은 매번 남아요. 짧고 밀도 있는 영화와 달리, 수다 떨 듯 주구장창 이야기를 늘리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극중 필리핀의 ‘카지노 전설’을 연기한 그는 오른팔 이동휘, 자신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파견경찰 손석구 등과 호흡을 맞추면서 “제대로 자극받았다”고 돌아섰다.

“동휘와는 애드립을 참 많이 나눴어요. 서로 ‘하고 싶은 연기 다 하자’는 마음이었죠. 마치 재즈 같았어요. 석구, 동휘할 것 없이 매일 대본 퍼놓고 난상토론을 벌여서 ‘너희 고시 공부하니?’라며 웃은 적도 있습니다. 팀플레이의 개념을 확실히 아는 친구들이었죠. 이런 프로들과 함께 작업해보니 나이나 경력이 무슨 상관이라 싶더군요.”

글로벌 OTT로 드라마를 내놓으면서 해외 성과를 기대할 법도 하지만, 최민식은 “언제나 결과에는 크게 신경 안 쓴다”고 말했다. 오히려 “디즈니+가 영입비밀이라면선 소외수 등을 공개하지



‘카지노’로 거친 매력을 뽐낸 최민식은 “언젠가 따뜻한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며 웃었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않아 다행”이라며 껄껄 웃었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배우는 인테리어업자예요. 감독이 설계해놓은 건물에 무슨 색 페인트를 칠할지, 어떤 전등을 매달지 정도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이미 완성됐는데 어찌했어’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신경 쓰지 않아야 건강하게 오래 일해요. (작품을)만드는 재미에만 취해 살아야죠. 다음 작품을 위해 복습하면서 자기반성을 하면 그뿐입니다.”

새로운 꿈도 생겼다. “1995년 연극 ‘햄릿’ 이후 27년 만에 다시 만난 고 희장 역 이해영과 로맨스 상대로 만나는 것”이다.

“동갑내기인 해영 씨와 다시 마주한 순간들 모두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옛그제 술 한 잔 기울이면서 ‘다음엔 로코 한 편 찍읍시다’ 했어요. 해영 씨는 빈말하지 말라던데요? 하하!” 유지혜 기자

정성일

“출연자로서 힘 보탠 것 같아 기뻐” 차기작 연극…기본 다시 다질 것

정성일은 매일 ‘더 글로리’의 인기를 느끼고 있다. 자신의 SNS에 영어, 인도어 등 각국의 언어로 줄줄이 달리는 댓글이 “신기하기만 하다”며 눈빛을 반짝였다.

“지난해 12월 파트1이 공개되고 나서는 한동안 ‘결말 알려 달라’는 질문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집 가서 대본보고 말해줄게’라며 자리를 숙였죠. 스포일러를 할 수 없으니 나름대로 핑계를 댔 거죠. 3개월간 힘들었어요. 하하!”

올해 7살인 아들은 유치원에서 사인 요청을 받아오기도 했다. 정작 아들은 “아빠, 근데 사인이 뭐야?”하고 되물었다며 그는 웃었다. 드라마에서 아내 박연진(임지연)이 외도로 낳은 딸 예술이를 친딸로 받아들이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하도영처럼 실제로도 아들의 등원을 책임지는 ‘아들 바보’다.

“아이는 아직 저를 ‘같이 놀아주는 사람’으로만 알아요. 아직 배우라는 직업을 잘 모르니 아쉽긴 하죠. 동갑내기인 아내를 닮아 아들도 장난꾸러기예요. 돌이 똑같은 장난을 쳐요. 두 사람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하도영이 학폭 가해자인 아내와 연을 끊고 예술이를 데리고 떠나는 결말을 이해한 이유로 “키운 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아빠’이기 때문”이라고 돌아섰다.

“드라마가 학폭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더 글로리’의 정성일은 “좋은 드라마가 가진 힘을 제대로 실감한 기회”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정말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사실 학폭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내 아들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출연자로서 미미하게나마 변화에 힘을 보탠 것 같아서 무척 기뻐요.”

단박에 스타덤에 오르면서 안방극장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일단 무대로 돌아갔다. 1월 개막한 연극 ‘뷰티풀 선데이’와 5월 28일까지 공연하는 뮤지컬 ‘인터뷰’ 무대에 동시에 오르고 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과 캐릭터를 분석하는 기본기를 다시 다지게 돼요. 드라마를 연이어 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 기본을 잊게 되고, 하루루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무대를 정말로 사랑하고요. 누군가는 물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하지만, 지금껏 해온 대로 천천히 나아가고 싶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서진이네’, 韓예능 최초 아마존 공개

해외 인지도 높은 출연자·이국적인 바칼라르 눈길



tvN ‘서진이네’(사진)가 한국 예능 포맷 최초로 글로벌 OTT 아마존 프라임비디오에 공개돼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론에 따르면 ‘서진이네’는 26일(한국시간) 오후 현재 프라임비디오 세계에서 ‘많이 본 TV쇼’ 부문 15위를 차지했다. 1위에 오른 홍콩·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 등 8개 국가를 비롯해 총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10위권에 진입한 결과다.

프로그램은 배우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과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가 멕시코의 유명한 휴양지인 바칼라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을 담는다.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출연자들과 바칼라르의 이국적인 풍광을 내세워 해외 시청자의 관심을 받는데 성공했다.

미국 리뷰 사이트 IMDb에서는 “출연자들이 다소 벽찰수 있는 음식점 영업을 저마다 열정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재미있다”, “아름다운 바칼라르 풍경에 반했다” 등의 평가를 받으면서 2800여 명의 시청자로부터 10점 중 9.5의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해외 언론 매체들은 드라마가 아닌 예능 포맷으로 해외 OTT에서 순위를 높였다는 점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미국 메트로 필라델피아 등은 “‘서진이네’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케이팝, 영화, 드라마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서진이네’와 함께 넷플릭스 ‘피지컬: 100’, MBC ‘나 혼자 산다’ 등을 조망하면서 ‘리얼리티 쇼가 차세대 ‘케이(K) 콘텐츠’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3

최시원, SM과 지구보호 위한 ‘어스 아워’ 동참



최시원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어스 아워’(Earth Hour)에 함께했다. ‘어스 아워’는 비영리 자연보전기관 세계자연기금이 기후 위기에 직면한 지구를 위해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소등한다.

올해 서울 남산타워, 프랑스 에펠탑, 호주 오페라하우스 등 190여 개 국가의 랜드마크에서 진행됐다. SM도 1시간 동안 사무공간의 모든 불을 끄고 동참했다. 최시원은 한국세계자연기금 SNS에서 진행될 ‘당신이 불 끈 사이’ 릴레이 라이브에 참석, 한국세계자연기금 이사장 홍정욱, 방송인 안현모와 지구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승리 열애설’ 유혜원, 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



유혜원

그룹 박병의 전 멤버 승리와 열애설에 휩싸인 유혜원이 악플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혜원은 SNS에 “근거 없이 사실화된 댓글, 악성 댓글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으며 어떠한 선처 없이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매매·상속도박 등 총 9개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올해 2월 출소한 승리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여러 광고와 웹드라마 ‘고, 백 다이어리’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임영웅, 방탄 제치고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임영웅

가수 임영웅이 뉴진스와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3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2023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2169만6380개를 분석한 결과 임영웅이 1위에 올랐다. 뉴진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가 뒤를 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1일 개봉한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의 인기가 브랜드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화는 26일까지 누적관객 22만7956명을 모았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BTS 지민 솔로앨범, 발매 첫날 102만 판매 ‘신기록’

케이팝 솔로가수는 지민이 유일 전 세계 차트 강타…줄세우기도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솔로가수로 전 세계 차트를 강타하며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민은 24일 발표한 첫 솔로 앨범 ‘페이스’를 통해 발매 첫날 밀리언셀러를 기록, 전 세계 110개국 아이튠즈 1위, 일본 오리콘 데일리 차트 1위에 오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26일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국내 음반 판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첫 솔로 앨범 ‘페이스’로 글로벌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뮤직

매량 집계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페이스’는 발매 첫날 판매량 102만1532장을 기

록했다. 이 차트에서 케이팝 솔로가수가 발매 첫날 판매고 100만 장을 넘긴 사례는 현재까지 지민이 유일하다.

‘페이스’는 지민이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는 공식 솔로 음반이다.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와 선공개 곡 ‘셋 미 프리 Pt.2’(Set Me Free Pt. 2)를 비롯해 총 6곡이 담겼다.

지민의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앨범은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등 전 세계 63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타이틀곡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 111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1659만 뷰를 넘기며 빠르게 조회수를 높이고 있다.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24일 차)에서도 22만2120만 장의 판매량으로 정상에 직행했다.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서는 타이틀곡을 포함해 1위부터 앨범 전곡을 줄세우기했다.

지민은 앨범을 발표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느낀 두려움이나 걱정, 공허함 등 진솔한 감정을 앨범에 담았다”며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많은 분이 방탄소년단 지민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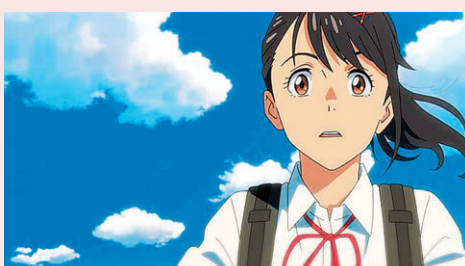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日电니 ‘스즈메의 문단속’…300만 돌파 눈앞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 OST 차트인…협업 카페도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사진)이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관객을 끌어 모으며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개봉 시기에 운영을 시작한 컬래버레이션 카페에도 팬들의 발길이 몰리는 등 영화의 인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26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



면 8일 개봉한 ‘스즈메의 문단속’은 25일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265만 관객을 모았다. 437만 명을 동원하며 올해 개봉작 중 가장 흥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보다 같은 기간 140만 명 더 모았다.

개봉에 앞서 한국을 찾아 “300만 관객이 넘으면 다시 내한하겠다”고 내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공약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의 화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26일 토요일 주말 관객수는 34만 명으로 전주(31만 명)보다도 높았다. 2위를 차지한 ‘웅남이’(5만 명)보다 약 7배 많은 관객을 모았으며 전체 극장 매출액의 65.2%를 벌어들였다.

영화를 향한 팬들의 열성적인 지지는 극장 밖으로 뻗어가고 있다. 특히 영화와 협업해 지난달 2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컬래버레이션 카페가 인기다. 영화 속 캐릭터를 담은 음료

와 디저트 등을 판매하고 있는 카페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일일 평균 매출이 1000만 원에 달한다. 카페는 4월 9일까지 운영된다.

OST까지 인기를 얻어 일본어로 된 네이메이션 수록곡으로는 이례적으로 국내 OST 음원차트에도 랭크됐다. 메인 테마곡인 래드웍프스의 ‘스즈메’는 20일 82위로 멜론 OST 톱100 차트에 진입했으며 26일 9위까지 올랐다. 다른 수록곡인 ‘카나타 하루카’(48위), ‘난데모나이야’(57위), ‘스즈메의 눈물’(85위), ‘젠젠 젠세’(93위) 등 5곡이 톱100 차트에 포함됐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